

# '블랙리스트 7인방' 2심 전원 유죄

정부 비판 성향 문화예술인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업을 주도한 혐의의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7명에게 항소심이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조영철)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종덕(61) 전 문체부 장관은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상률(58)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신중철(57)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54) 전 문체부 1차관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소영(52) 전 문체부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헌법은 문화국가를 기본 원리로 채택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은 정치적 견해 등과 관계없이 문화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다른 이념적 성향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를 좌파로 규정해 명단 형태로 관리하며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며 "양심의 자유나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등에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은 그동안 헌신적인 공직자나 존경받는 화자·법조인 등으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나름대로 나라와 사회를 걱정했다"며 "하지만 이 사건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지원 배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국가권력 정점에 있는 대통령과 측근 보좌관들이 이 같이 조직적·장기적으로 나선 것은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 걸쳐 전례 없는 일이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화에 옳고 그름이란 있을 수 없다"며 "정부가 문화를 차별대우하는 순간 자유민주주의의 길은 퇴색되고 전체주의로 흐른다"면서 이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김 전 실장 등은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집행하도록 지시·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 김기춘은 징역 3년→4년으로 형량 늘어 法 "정부의 문화 차별대우는 전체주의"

졌다. 이들은 또 박근혜(66)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문체부 실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도 받았다. 조 전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고도 몰랐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정치 권력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해 헌법 등이 보장하는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히 침해했다"면서 "건전한 비판과 창작 활동을 제약하고 검열

을 금지하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조 전 장관에 대한선 정무수석 부임 당시 문예기금 지원 배제명단 등을 보고까지 받았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는 무죄,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빙벽 오르는 산악구조대원들 강원, 수도권 등 중부지역 한파경보가 발효된 23일 서울소방 119 특수구조단(단장 최성희) 산악구조대(대장 이재홍) 대원들이 빙벽사고 대응 인명구조를 위해 서울 시내 한 빙벽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 25억원 대수산물 부당 위탁 판매 수협 직원 등 8명 적발

여수해경, 무자격 도매인·수협 관계자 2명 구속

어민들이 힘들게 잡은 25억 원 상당의 수산물을 자격 없는 도매인에게 외상으로 넘긴 뒤 돈을 받지 못하자 허위 어획물 거래 내역을 작성한 수협 직원과 수산물 위탁판매자 등이 줄줄이 검거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무자격 도매인 김 모(44) 씨에게 외상으로 12억 원대의 수산물을 경매받게 해주고 미수금이 발생하자 허위 거래내역을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한 모 수협 판매과장 이 모(44)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위반 혐의로 불찰아 조사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해경은 수협 직원과 부당 위탁 판매자 등 8명을 적발해 이 중 2명

을 구속하고 6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일부 도매인들의 수산물경매량과 판매대금 미회수율이 증가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수협은 행의 고소 때문에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실제로 해경 조사결과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이 모 씨와 김 모 씨는 서로 공모하고 다른 중도매인 6명의 명의를 빌려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358회의 경매에 참여했으며 12억 원 상당의 수산물 판매대금을 불법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6명의 중도매인의 미수금이 증가하

자, 이를 감추기 위해 다른 어민의 명의를 빌려 어획물을 판매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판매장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수협 수산물 거래 시스템에 위탁인·어종 등 부정 사용내역을 입력해(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위탁판매계산서와 정산표를 발급받아 수산물 대금 약 13억 원을 빼돌렸다고 해경은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수협이 어민들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수탁판매 사업 정책을 허술하게 관리 하고 일부 직원이 거래내역 자료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해 수협 직원 손해를 끼치는 등 사안이 중대해 엄중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 필리핀 마운 화산분화...대폭발 임박 경고

필리핀 마운 화산이 23일 오전 용암과 화산재를 내뿜으며 분출 대폭발이 임박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이날 마운 화산에서 분출한 용암이 700m 상공으로 치솟았는가 하면 화산재가 3km 상공으로 솟구치기까지 했다. 루손섬 알바이주 재난당국은 23일 현재 약 3만명이 대피시설에서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날 마운 화산의 경보 등급을 기존 3등급에서 4등급으로 격상했다. 4등급은 최고 5등급의 바로 아래이다. 이는 마운 화산이 수 시간 내 또는 수일 내 대폭발할 것으로 의미한다고 AP통신은 지적했다. 위험 지역은 분화구로부터 반경으로 8km로 확대됐다. 아직까지 사망자나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는 없다. 화산재 때문에 항공사 상당수가 화산재를 피해 항로를 바꾸거나 항공편을 취소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마운화산은 마닐라에서 남동쪽으로 340km 떨어진 지역에 있는 활화산으로 지난 500년간 50번이나 폭발했다. 지난 2013년 화산재가 분출해 등산객 5명이 경로를 무시하고 정상에 올라가다 대피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가장 격렬하게 폭발한 때는 지난 1814년으로 당시 주민 1200명이 숨졌고 카고사 마을 전체가 폐허가 됐다.

## 중국계 스웨덴 출판업자, 베이징서 실종

중국계 스웨덴 국적의 출판업자인 구이민하이(桂民海·53)가 최근 베이징 여행 기사를 썼다가 요원들에게 끌려간 후 소식이 끊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콩에서 코즈웨이베이 서점(銅鑼灣·銅鑼灣)을 운영하며 중국 정부에 비판적인 서적 수백권을 출간해온 구이민하이씨는 지난 2015년 10월에도 실종돼 당국에 끌려갔다는 설이 나왔지만 이듬해 1월 갑자기 중국 관영TV에 모습을 드러내 "2008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죽인 죄를 자백하기 위해 중국으로 와 자수했다"고 드드없이 고백했다. 그 이후에도 구이민하이씨는 홍콩으로 돌아오지 않고 중국 남보에 체류하면서 '반자위'의 몸으로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이민하이씨의 딸 앤절라 구이에 따르면, 구이민하이씨는 지난 20일 베이징 주재 스웨덴 대사관에 가기 위해 기사를 썼다. 회귀 신청서 작성에 걸렸을 가능성 때문에 대사관에서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기차가 베이징 근처 역에 도착하자 갑자기 10명의 경호복을 입은 요원들이 뛰어닥치더니 그를 끌고 어디론가 갔다. 앤절라 구이는 "그 이후로 아버지가 지금 어디있는지 등에 대해 전혀 듣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인권운동가 존 캄은 뉴욕타임스에 "구이민하이씨가 심각한 신경계 질병 증상을 보이고 있다. 2015년 10월 (중국 당국에) 체포되기 전에는 없던 증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노벨상을 수상한 류사오보가 지난해 7월 수감 중 임에 걸려 사망한 것으로 지적하면서 "또다른 사람이 감옥 안에서 죽는 일을 보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스웨덴 외교부의 파트리 닐손 대변인은 22일 라디오 스웨덴에 "정부 최고위급이 구이민하이씨의 구급에 대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매우 심각하게 이 사안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 시리아서 또 화학무기 의심 공격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의 반군 지역에서 또 화학무기 의심 공격이 발생했다. AP통신은 22일(현지시간) 시리아 현지 활동가들과 구조대를 인용해 정부군이 이날 다마스쿠스 두마 지역에 독가스 의심 공격을 가해 민간인 약 20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시리아 민방위대(SCD, 일명 하얀 헬멧)와 반군연맹체 쿠타 미디어 센터(GMC)는 독가스가 염소로 의심되며, 민간인 부상자에 여성과 어린이가 다수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번 공격이 발생한 두마는 반군의 마지막 거점으로 불리는 동부 구타에 위치한다. 시리아 정부군은 이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일대를 봉쇄하고 강도 높은 군사 작전을 진행해 왔다. 헤더 노어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분명히 하자, 아사드 정권을 억제하지 않는, 혹은 억제하지 못하는 러시아 때문에 무고한 시리아인들이 생명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어트 대변인은 "우리는 수많은 시리아인들의 목숨을 앗아간 화학무기 사용 사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결의를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모두, 안녕하세요?**

국가건강검진이 국민의 건강을 지킵니다

**국가건강검진**

- 일반 건강검진
- 생체정보 건강진단
- 연유아 건강검진
- 임 검진
- 구강 검진

**'국가건강검진' 효과 비교**

검진 항목	검진 전	검진 후
심혈관 질환 발생률	42%p 감소	
암 발생률	18%p 감소	

보건복지부 | 콜센터 129

국민건강보험 | 고객센터 1577-1000